



스타필드
‘복’ 기원 퍼포먼스 등 행사

경방 타임스퀘어
뷰티·패션상품 할인 프로모션

IFC몰
전통놀이·이색간식 등 체험



강병인 캘리그라피 작가 붓글씨 퍼포먼스 /신세계프라퍼티



타임스퀘어 매장 /경방 타임스퀘어



IFC몰 설맞이 이벤트 /IFC몰

경자년 설을 맞아 복합쇼핑몰이 분주하다. 도심에서 편하게 연휴를 보내는 몰링족이 많아짐에 따라 복합쇼핑몰들이 쇼핑과 여가, 레저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풍성한 설 연휴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다.

먼저, 쇼펄테마파크 스타필드는 전통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퍼레이드, ‘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 등 다양한 새해 기념 행사들로 2020년 시작을 알린다.

전통 춤과 사자놀이를 흥을 돋우는 ‘설맞이 퍼레이드’가 26일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오후 2시와 5시,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설맞이 퍼레이드’는 총 22명의 공연단이 전통 음악 연주와 봉산탈춤과 사자놀이 등 역동적인 춤을 선보이며 관람객과 만나는 대형 퍼레이드다.

공연에는 경자년을 상징하는 쥐모양 탈, 신년 축하 대형 깃발이 소

품으로 등장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여기에 공연단이 직접 전통 간식을 나눠주고, 함께 사진촬영도 하며 명절 분위기를 한층 띄울 예정이다.

또한, 쥐의 해인 경자년을 맞아 ‘취해롭게 우리 모두 큰 행운을 쥐어보자’라는 테마로 강병인 캘리그라피 작가가 풍요로운 새해를 기원하는 대형 붓글씨 퍼포먼스를 펼친다.

강병인 작가는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현장을 찾아준 고객들 위해 신년 덕담을 캘리그라피로 제작, 선물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사전 선착순 접수한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27일에는 스타필드 시티 명지에서, 내달 8일에는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

24일부터 2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고양, 코엑스몰, 스타필드 시

티 위레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트릭샷 챌린지’도 실시한다. 이벤트는 공차기, 미니골프 등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들로 구성됐으며, 각 게임 별 정해진 미션을 성공하면 미니 스낵과 선물을 증정한다.

복합쇼핑몰 경방 타임스퀘어는 설 연휴 기간에도 정상영업을 실시하고, 키즈 콘텐츠 및 뷰티, 패션 상품을 할인하는 ‘설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패션 라인인 아웃도어부터 스포츠, 아동복 등 폭넓은 브랜드가 참여한다.

노스페이스는 2020 SS 신상품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상 구매 시 각각 1만 원, 2만 원, 3만 원의 할인을 적용한다.

디스커버리 역시 금액별 즉시 할인 이벤트와 FW 상품 30% 세일 프

로모션을 진행한다.

뷰티 브랜드들은 ‘설 선물 대전’을 열고 스킨케어 제품을 대폭 할인한다.

더페이스샵, 미샤, 아리따움 등은 풍성한 설 기획세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혜택을 선보인다.

한편, 타임스퀘어는 연휴 기간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정상영업을 실시하며 설날 당일인 1월 25일에만 오후 1시에 오픈한다. (병원 등 일부 매장 제외)

끝으로 IFC몰은 올해 유난히 빠르고 짧은 설 연휴를 도심에서 보내는 몰링족들을 위해 전통문화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23일부터 27일까지 IFC몰 L3층 사우스아트리움에서 진행되는 전통문화 체험 이벤트는 전통놀이와 이색 전통 간식을 즐길 수 있는 프

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통놀이 마당에서는 남녀노소 온 가족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활쏘기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전통 방식으로 만든 한과와 옛, 과자 등 전통 먹거리가 준비된 기프트존에서는 민속 고유의 간식을 체험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동반 고객 대상 캐릭터 풍선 서비스와 2020년 새해 소망을 적어주는 캘리그라피 서비스도 진행된다.

한편, IFC몰은 이달 말까지 최대 7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겨울 정기세일도 동시에 진행한다.

설 연휴 기간(1월 24일~27일) 동안 정상 운영하며, 설날 당일인 25일만 일부 매장 영업시간이 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IFC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우리 정서에 ‘딱’... 2020 설 책임질 한국영화 세편 동시개봉

남산의 부장들 대통령 암살 전 40일 간 벌어지는 이야기

히트맨 비밀요원이 웹툰작가로 권상우가 펼치는 코믹 액션

미스터 주 : 사라진 VIP 동물 말이 들리면서 생기는 코미디



남산의 부장들 /쇼박스



히트맨 /롯데엔터테인먼트



미스터 주: 사라진 VIP /리틀빅픽처스

극장이 최대 성수기인 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영화 세 편이 동시 개봉했다. 바로 ‘남산의 부장들’, ‘히트맨’, ‘미스터 주: 사라진 VIP’다. 내로라하는 연기와 배우 이병헌, 권상우, 이성민을 내세운 극과 극 매력의 영화 세 편이 관객을 맞이한다

이병헌 주연의 ‘남산의 부장들(감독 우민호)’은 폭발적인 기대감과 입소문에 힘입어 개봉 3일 전인 일요일, 전체 예매율 1위에 등극한데 이어 높은 예매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시사회 이후 폭발적인 입소문을 입증했다.

‘남산의 부장들’은 역대 설 연휴 최고 흥행작이자 1600만 관객 동원

작 ‘극한직업’의 개봉 당일 오전 9시 30분 예매량인 10만1682장을 하루 앞당겨 경신했다.

‘남산의 부장들’은 배우들의 인생 연기 경신, 우민호 감독이 ‘내부자들’ 이후 새로운 명작을 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단의 고른 호평과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은 예매율에도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중이다.

영화는 1979년, 제2의 권력자라 불리던 중앙정보부장(이병헌)이 대

한민국 대통령 암살사건을 벌이기 전 40일 간의 이야기를 그린다.

설 연휴 전세대가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영화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맞서 권상우 주연의 ‘히트맨’과 이성민의 ‘미스터 주: 사라진 VIP’는 코미디로 극장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먼저, ‘히트맨(감독 최원섭)’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국정원을 탈출한 에이스 비밀요원 준(권상

우)의 코믹한 액션 원맨쇼다.

인간 병기 부대인 ‘방패연’이라는 비밀 프로젝트의 전설적 요원으로 활약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꿈을 위해 죽음을 위장한 준은, 제2의 삶을 살게 된다.

드디어 웹툰 작가의 꿈을 이뤘는가 하면 연재하는 작품마다 악플 세례받기 일쑤.

결국 술집에 그리지 말아야 할 1급 기밀을 그려 하루아침에 초대박이 나지만 이로 인해 국정원

과 테러리스트의 타깃이 되고 만다.

작품은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로 전개된다. 소재의 신선함을 훼손하지 않음과 동시에 스토리 짜임새도 나름 탄탄하다.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현실 연기와 비현실적인 만화적 소재가 편안하게 맞물려 부담없이 볼 수 있다.

‘미스터 주: 사라진 VIP(감독 김태운)’는 설 연휴 극장가에서 가장 신선한 내용을 담았다.

영화는 국가정보국 에이스 요원 태주(이성민)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온갖 동물의 말이 들리면서 펼쳐지는 사건을 그린 코미디다.

VIP 경호 임무를 수행하던 태주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VIP를 놓치게 되고, 군견 알리의 도움을 받아 VIP를 찾아 나선다. 동물들의 말이 들린다는 소재는 기존 영화에서도 다뤘던 것이다. 그럼에도 배우들의 연기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스토리 전개가 영화에 빠져들게 만든다. 세 영화 모두 22일 개봉해 절찬리 상영 중이다

/신원선 기자